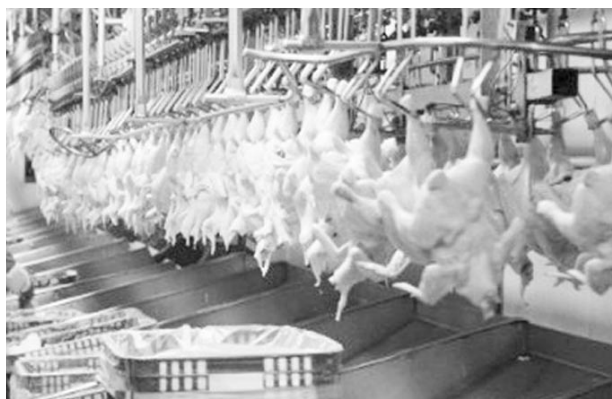


대형닭 생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홍보부



대형닭 생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닭 생산은 닭고기의 진정한 맛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생산비를 줄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에서도 대형닭 생산 및 수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국내에는 대형닭 생산에 대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사환경 등 인프라가 빈약해 대형닭 생산 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의 육계출하 체중을 보면 2~3kg에 달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하체중이 우리나라(1.5kg)와 비슷한 프랑스(1.3kg)도 있지만 일본, 중국, 폴란드 등은 출하체중이 2.2~2.5kg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닭 생산기술 이미 확보

축산과학원에서는 수년전에 이미 '대형닭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회 김정연구소에서도 7주에 3kg까지 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대형닭 생산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대형닭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면 일본 등 가까운 시장에 충분히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닭을 크게 키우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 등은 맛과 위생이 따라준다면 언제든지 수출이 가능하다.

축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닭의 체성분은 어릴수록 수분함량이 높다가 크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육계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중 풍미를 결정하는 특정 아미노산의 함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맛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래 키우면 초기투자비용(초생추 구입비)이 줄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3kg을 키울 때 1.5kg을 키워 출하하는 것 보다 13% 수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도 대형닭을 키워 생산비를 절감하고 풍미있는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은 물론 닭고기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계사환경 등 여건 부족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 및 유통구조상 1.5kg의 닭고기를 생산하는 체계가 굳어진지 오래다. 큰 닭을 생산한다 해도 이를 도계할 곳이 마땅히 없으며, 작은 닭에 길들여진 소비자들 역시 제대로 커진 큰 닭을 보면 너무 크게만 느껴져 손이 가질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대형닭을 키워낼 수 없다. 생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계사시설이 큰 닭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의 계사환경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여 대형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완전계사 정도의 시설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요즘처럼 종계 생산성이 나쁠 경우 병아리 품질을 장담할 수 없으며, 대형닭으로 키울 때에는 질병발생시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선별

리 대형닭을 생산하려고 나서는 농가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도계장 역시 대형닭고기 생산을 위한 라인 등 설비가 필요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대형닭 생산을 위한 시설을 증설한다고 가정할 때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는 문제없지만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육계시장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과거 대형닭고기 수출을 위한 전문 도계장을 표명했던 모 도계장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일반 도계장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업계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H계열사는 수출 전용 닭고기 도계장을 천명하며 국내 육계산업이 나가야할 비전을 제시하였고, '닭고기 수출'이라는 명분하에 정부로 부터의 관심을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하였지만 현재는 실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육계인들만 혼란에 빠지게 한 께이 되었다.

현재 병아리가 부족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조차 힘든 이때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출닭 육성'이란 단어만을 '장미빛 인생'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다시 업계를 안개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나라도 FTA 등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대형닭 시장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대형닭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양계**